

**교수의회 “자구적인 재원조성, 학사·행정 개편부터”**  
**서울 총학 “사회 수요에만 경도된 원안 수정돼야”**  
**국제 총학 “캠퍼스 본·분로 인식 청산할 기회 놓쳐 아쉬워”**  
**직원 노조 “학문단위 재조정 단과대학 수 조정에서 시작”**

“하지만 프라임사업의 방향이 단순히 사회의 수요에만 집중한 것이고,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에 어긋나기에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이의이 되는 방향에 대해 학교 측과 보다 면밀하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먼저 “프라임사업을 캠퍼스 간 본·분교 인식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프라임사업에 탈락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조심스럽게 국제캠 총학이 생각하는 탈락 원인을 전했다.

김 회장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좀 더 과감하게 사회수요에 맞는 과를 증원하거나 확실한 행동을 보였어야 하는데 ‘네이터과교과’나 ‘바이오헬스산업과’ 같은 애매한 학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와 우리학교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실망이 크다”며 “프라임사업 선정이 끝난 지금,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학,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사업 계획서 상 가장 큰 개편이 예상됐던 생명과학대학은 아직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생명과학대학 백광희(유전공학) 학장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백 학장은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의논 중이며, 각 학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이상 당장 개편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

용은 오는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많은 정보교환과 협의 체계를 만드는 것에 행정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내로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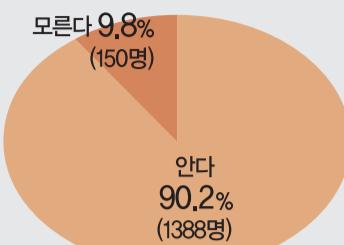
직원 측 대표인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도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 실패에 대해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먼저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같은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은 후에 프라임사업에 지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나 외부 지침에 의해 서라기보다 자율적으로 학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원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학문단위 재조정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단과대학 수를 줄이지 못하면 정원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단과대학 수를 줄이면 보직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수를 줄여야 나중에 학문단위 재조정이 수월할 수 있다”며 이는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조합원들의 의견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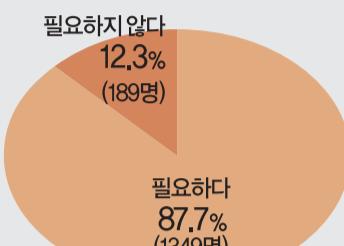
더불어 “자율운영제로 운영된다면 단과대학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비대해지는 중앙부서의 인원 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도 이번 프라임사업을 계획하면서 학문단위 재조정이 있을 거란 말을 듣고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사업 기한을 맞추느라 거론 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라임사업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선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을 할 때다. 원점이든 중간지점이든 다시 돌아가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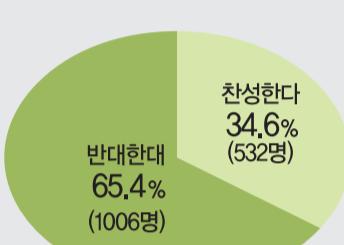
**프라임사업 선정  
최종 탈락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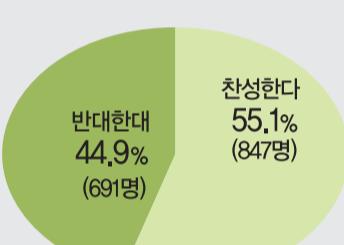
**프라임사업 최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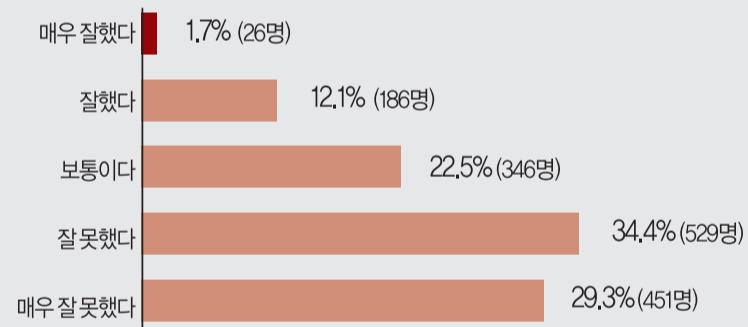
**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학문단위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측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기간: 2016.05.17.~2016.05.20. / 조사방법: 이메일 대량 설문조사

**원안 추진 65% 반대,  
학문단위 조정 55% 찬성**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3일 프라임사업 탈락 이후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17일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나흘 동안 총 1,519명의 구성원이 참여하며 프라임사업 이후 높아진 관심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프라임 사업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88명(90.2%)으로, ‘모른다’고 응답한 150명(9.8%)을 압도했다. 한편 프라임사업 준비기간 내내 이슈로 대두되어온 ‘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는 응답이 26명(1.7%), ‘잘했다’는 응답이 186명(12.1%)에 그친 반면, ‘잘 못했다’는 응답은 529명(34.4%), ‘매우 잘 못했다’는 응답은 445명(29.3%)으로, 전체 응답자의 965명(63.53%)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응답자 중 87.7%에 이르는 1,349명이 ‘프라임 사업 탈락에 대해 학교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탈락 후에도 ‘프라임사업 계획서 제출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학교에 입장에 대해, 구성원의 1,006명(65.4%)이 ‘제출안대로의 진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사고를 정부와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획일화 시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본교 계획안은 본, 분교 문제, 학과 간 이기주의, 구성원 간 갈등이 내포된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학 관련학과를 신설·육성 하려면 재정계획이 탄탄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전망이 좋지 않다’는 현실적 견해도 제시됐다.

하지만 학문단위재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847명(55.1%)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프라임사업의 기조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 원장은 “우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문단위재조정과 프라임사업 계획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05.30(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6.06.07(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06.14(화) 10:30 ~ 06.15(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06.15(수) 12:00 (火)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06.16(목) ~ 06.20(월) 16:00	하니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증명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06.21(화) 09:00 ~ 17:00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06.22(수) ~ 07.03(수)	
성적발령(정성)일	2016.07.15(금) ~ 07.18(월)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마누 증 [계절학기 등록금 인내 침조]  
 1) 입력사항: 학년(2016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니은행 계좌번호 확인
-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수강 수료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급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06.21(火) 17:00	전액 환불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수업개시일 1/3 경과 전	2016.06.22(수) ~ 06.28(화) 17:00	수강료의 2/3 환불	(본인명의 통장 사용 동봉)
수업개시일 1/3 경과 후	2016.06.29(수) ~ 2016.07.01(금) 17:00	수강료 1/2 환불	*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 환불금액의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비로 환불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운/자유이수) 20명 이상  
 나. 전공강의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시험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  
 바.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원불/수강정지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 2/3 이상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출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 이상이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출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 가. 서울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育관 5층

후나이너스클리리지 행정실